

## 달 밤

흐르는 달의 흰물결을 밀쳐  
여윈 나무그림자를 밟으며,  
北邙山을向한 발거름은 무거웁고  
狐獨을伴侶한 마음은 슬프기도하다.

누가있어만 싶은 墓地엔 아무도없고,  
靜寂만이 군데군데 흰물결에 폭젓었다.

一九三七、四、十五、

## 달 밤

흐르는 달의 흰 물결을 밀쳐  
여윈 나무그림자를 밟으며,  
북망산을 향한 발걸음은 무거웁고  
고독을 반려한 마음은 슬프기도 하다.

누가 있어만 싶던 묘지엔 아무도 없고,  
정적만이 군데군데 흰 물결에 폭 젓었다.

1937. 4. 15.